

질문으로 하는 성경공부: 사사기

1. 주님만을 예배하라 [삿 2:16-23]

관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해석	사람들은 사사가 죽으면 주님과 '언약'을 어떻게 어기었나요?
먼저오심	주님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약탈자들에게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당신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그 때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 있었나요?
만나주심	구원함을 얻은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다듬으심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쉽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달콤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사들은 약탈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사처럼 보내시어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2. 시험에 드는 이유 [삿 3:1-11]

관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 일은 무엇인가요?
----	-------------------------------------

해석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오심	신자가 처해 있는 곳은 세상 한 복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일상은 끊임없는 영적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 받고 있는 혹은 받기 쉬운 영적 도전과 싸움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 당신은 어떠한 변화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영역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다듬으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신자들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시험을 통해 혼탁한 세상과 벗어나고 살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용사로서 세상을 대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능력이 계발되는 영적성장을 원하십니까?
들어쓰심	웃니엘이라는 사사는 갈렙이라는 훌륭한 신앙인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메소포타미아왕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주님은 그의 주저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는 일은 무엇인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실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혹은 당면할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이 상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3. 영적인 삶의 바운더리 [삿 3:12-17, 20-30]

관찰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자 모압왕 에글론에게 몇 년간 통치 받아야 했나요?
해석	왜 이스라엘은 모압의 군대와 싸울 때 요단강 나루를 점령했나요?
먼저오심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만났을 때 왕은 부하들을 물리고 경계를 허술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본래 그는 삶을 잘관리하지 못하여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17, 22 절) 무절제와 무방기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지요. 주님은 이 부분을 공략하여 사사 에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죄로 인하여 신음할 때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찾아 오셨나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도우셨나요?
만나주심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에훗과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이기고 이후 80 년간 평온한 세월을 맞습니다. 지난 18 년간 모압의 압제를 넘어서서 얻은 소중한 평화였습니다.전쟁의 전과 후는 극과극, 그야말로 천지차이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후에 당신이 얻게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특별히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나요?
다듬으심	우리의 삶도 방심하여 바운더리(경계)를 허술하게 할 때에 큰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의 바운더리가 허물어져 큰 위기에 처하였고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바운더리가 허물어질 때 겪게 될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들어쓰심	이스라엘은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여 모압인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멸절시킵니다. 이를 통해 모압에게 경고를 주며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허물어진 바운더리를 되찾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지금 당부하시나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안에 지켜져야 할 바운더리들은 무엇일까요? 목록을 만들어 실천해 보세요.
-------------	---

4. “맹스런 여성들 [삿 4:1-10, 15-23]

관찰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해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여인들 두 명은 누구인가요?
해석	이번 본문에는 등장인물 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아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오심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압제로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녀차별이 심한 고대 시대에 그것도 전쟁의 시기에 여성을 리더로 세우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의 감격을 맞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을 도우신 일이 있는지요? 그 경험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만나주심	하나님께서서는 본문의 인물들에게 각자 어려운 소임을 맡기시며 다가오십니다. 사사드보라에게는 전쟁 중에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바락은 전투에서 실제로 싸우는 장수로서, 그리고 야엘은 적장 야빈을 죽여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일을 하게 하하시는데 모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어려운’ 일을 수행함으로써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새롭게 체험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다듬으심	드보라는 장군 바락에게 실제 전쟁의 지휘권을 위탁하였고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이들을 존중 하라고 하시나요? 그리고 그 존종과 위탁을 통해 당신의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고 성장하게 될까요?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영적인 승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들어쓰심	모든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당신이 처한 삶의 현장 지금-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고 있나요? 각자의 역할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지요? 그것을 보완위해 최선의 방법들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진정한 자긍심[삿 6:11-24]

관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해석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먼저오심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 미디언 족속에 의한 핍박을 7년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포도주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신도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두려울 정도로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일이 있었나요? 그 때 주님의 빛은 어떻게 찾아오고 계셨나요?

만나주심	기드온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15 절)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자신의 집안과 형편 그리고 보잘 것 없음을 말합니다. 이 때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는 낮은 자긍심에 빠져있던 기드온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경험이 있나요? 나누어 보세요.
다듬으심	기드온은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스라엘에 이런 고통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여러가지로 항변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회피 반응에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그의 요구대로 계속 임재의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성장은 무엇입니까?
들어쓰심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로서 요리를 하여 대접하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불살라 받으시는 반응을 통해 임재를 확증하십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을 끝내 사용하겠다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을 부르시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당신의 일은 무엇인가요?

6. 내면의 적을 먼저 제거하라 [삿 6:25-32]

관찰	기드온은 우상들을 언제 파괴하였나요?
해석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먼저오심	주님께서서는 전쟁에 임할 기드온에게 소를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한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사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무너지고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요?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우상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던 때가 있었나요?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만나주심	전쟁에 임하려면 싸움에 사용할 무기와 자원들이 필요하고 군사 모집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드온에게 우상부터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면적인 정화와 훈련을 먼저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전쟁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자세와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다듬으심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제거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 일을 행합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지는 않나요?
들어쓰심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파괴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상이 파괴되어 화가간 마을 사람들의 위협을 오히려 우상의 제작자인 아버지가 막아주며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당신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와 기쁨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공동체에서 실천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제작하고 보관하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우상파괴의 임무를 먼저 주셨습니다.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하여 당신이 우선적으로 단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정은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나누어 주세요.

7. 전쟁의 법칙[삿 7:1-15]

관찰	기드온이 원래 거느린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사의 수는 몇명이었나요?
해석	적군인 미디안 병사들은 보리떡이 굴러오는 꿈을 꾸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보리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었나요?
먼저오심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서 보니 적들은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음성엔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위력이 무섭고 도전이 너무 커서 놀란 경험이 있었나요?
만나주심	그렇게 엄청난 적들의 숫자와 병기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를 오히려 300으로 줄이라 하십니다. 정말로 말도 안되는 명령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와같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듯한 일이 있었나요? 그 때 당신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다듬으심	주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하여 당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힘과 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보다 당신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하나님은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삶의 영역에서 찾아 나누어 보세요.
공동체에서 실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싸움에 이길 방법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세계의 영적 싸움에서 먼저 확신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내면세계가 더욱 건강해지도록 당신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

8. 믿음 아닌 지나친 열심이 초래하는 재앙[삿 11:1-8, 11:29-40]

관찰	입다는 왜 가족들로 부터 소외되어 살고 있었나요?
해석	주님께 서원한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먼저오심	입다는 출생시부터 가족들의 차별을 받아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하나님 만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신 적이 있는지요?
만나주심	하나님께서서는 입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소외된 한량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홀대 받던 사람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 받은후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게 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다듬으심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에 불안한 마음에서 그만 책임지기 어려운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승전하고 나올 때 자기 집에서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였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하게 환영하러 나온 딸을 희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하겠다는 결단의 자세는 좋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무모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

	보다 선불리 지나친 말과 행동을 하여 주변사람에게 예상치 어려움을 겪게 한 적이 있는지요?
들어쓰심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당신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었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까?

9. 사랑의 방향 [삿 16:4-6]

관찰	들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 삼손의 힘을 빼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를 내어줄 수 있었나요?
해석	나실인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오심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사랑에 도취합니다. 당신도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에 현혹되어 주님을 잊고 세상을 따르다가 세상에 이용당한 경험이 있는가요? 나누어 봅시다.
만나주심	주님은 유혹에 빠져 힘을 잃고 붙잡힌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어 그 능력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죄에 빠져 신음할 때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시어 당신을 회복시켜 주셨나요?
다듬으심	우리는 주님께 속한 백성이며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취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빠지기 쉬운 세상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어리석은 삼손은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합니다. 이방신전에 모인 이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여 힘을 달라고 한 후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운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유혹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릴 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나요?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10. 자기중심적 신앙의 오류 [삿 17:1-13]

관찰	본문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훔친 돈은 얼마였나요?
해석	미가는 자기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레위 사람임을 알자 자기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레위 족속과 제사장 직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오심	미가의 어머니는 누군가가 은돈 천백 냥을 훔쳐갔다는 그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자기 아들이고 또 그 돈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자 마음을 바꾸어 저주를 취소하려 합니다. 우리 역시 바깥 세상에 대하여는 제법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비판을 잘하지만 막상 그것이 '나'에 관련된 일이면 슬슬 잘못을 숨기려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주님을 만나기전, 당신이 판단하던 옳지 못한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하여 당신 자신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나요?
만나주심	미가는 부자가 된 이후에 레위인을 보자 자기 가족을 위해 예배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그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미가의 신앙행위는 자기 자신의 영욕을 채우기 위한 것(기복신앙)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뒷전으로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6 절은 이런 행위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 때에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백성을 진리와 선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줄 왕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주님을 만난이후 주님은 당신의 삶, 특별히 예배의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나요?
다듬으심	미가와 어머니, 그리고 고용된 제사장 역시 모두 물질에 눈이 어두워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단이 모두 자기중심적인 기준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운데 혹시 주님을 대신하는 우선적인 가치관이 있는지요? 무엇을 내려 놓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더욱 기뻐하실 까요?
들어쓰심	레위 사람은 역시 물질에 우선을 두고 있기에 미가가 맡겨주는 대로 제사장 직을 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맡기신 이는 누구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공동체에서 실천	민음의 공동체에서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이 발견될 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오늘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11. 영적인 질서가 없는 삶 [삿 19:1-3, 15-30]

관찰	레위 사람이 첩을 다시 데려오는 길에 묵게된 마을 기브아는 어느 족속의 땅이었나요?
해석	왜 레위인은 첩의 주검을 열 두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을까요?
먼저오심	본문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얻은 일, 첩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주어 폭행을 당한 사건, 그리고 그가 죽은 첩의 시신을 열 두 토막 내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어 온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 오시기전 당신은 삶은 어떠했나요?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나요?

만나주심	주님을 만날 때에 삶의 외부적인 조건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세계를 변화시켜 주시어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 그 은혜로 인하여 정리된 혼란스러운 상황 하나를 나누어 주세요.
다듬으심	레위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첩을 찾아 먼 길을 마다 않고 갔다 왔지만 신변의 안전을 느끼게 되자 불량배들에게 그녀를 넘겨주고 욕을 보게 합니다. 이는 자기 편한대로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행하는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당신이 '자기본위'가 아닌 '주님의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의 원칙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들어쓰심	하나님은 우리 삶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지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질서와 함께 기대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